

정후식칼럼



논설실장·이사

정치는 사회 문제와 공공 의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

한데 언제부터가 정치가 본궤도를 이탈했다. 소통은 커녕 극단적인 대결 정치, 진영 정치, 팬덤 정치가 판

‘정치·민생 실종’ 윤석열 정부 1년

작금의 정치 현실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재왕적이라고 할 만큼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보여 준 모습은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야당 대표와 만남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최

은펜칼럼



류 동훈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은펜칼럼 원고 마감날 새벽에 일어나 아담 속에서 희미한 불을 켜고 노트북을 켜다. 책꽂이의 성경을 더듬 더듬 찾아서 창세기 1장을 펴니 "태초에 하나님

하루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광주를 빛고을이라 한다. 빛고을 광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콘텐츠는 무엇으로 할까? 세상에 아들이 없

기 고



서금석 문학박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

대학에 들어갔더니, 교정은 온통 최루탄 냄새로 가득했다. 누구랄 것도 없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었다.

시대의 아픔이 어디 4월뿐이라. 4월의 기억이 20세기 초 엘리엇과 지금의 우리가 갈 수 없지만, 4월은

‘희망 고문 정치’는 이제 그만

라는 검사들이 국정 전반을 장악하며 강경 일변도로 국민을 갈라 치고 협치는 외면하고 있다. 경제·외교·안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 역시 체감하기 힘들다.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되

지역 공약이나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5·18의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지난 대선 이후 광주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는 복합 소풍물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주시민들이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 복합 소풍물을 간절히

빛고을 광주, ‘암흑 체험관’을 랜드마크로

보면서 빛의 소중함을 느끼는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발상의 전환이다.

광주 5·18 인권 문화도시라고 한다. 광주는 과거 속의 오월 정신에 파묻혀 있지는 않는지 묻고 싶다. 오월 정신을 이제 생활 속에서 구현하여 더불어 사는

암흑 체험관의 소재는 어둠 속에서 하는 모든 일상이 소재가 될 수 있다. 어둠 속에서 시장도 보고, 차도 마시고, 탁구도 치며, 미술작품도 감상하고, 영화도 본다.

필자는 이 암흑 체험을 다양한 아이디어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수준으로 재미있게 만들어서 광주의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만들면 좋겠다. 여러 개의 코스를 만들

‘잔인하고 배고픈’ 시절의 4월

삶에서 아픔과 잔인함은 기억으로 남는다. 배고픔만큼 잔인함이 또 있을까? '굶어 죽었다'는 상상은 사실 어느 땐가는 현실이었다. 신석기 혁명은 다름 아닌 농경 문화의 정착을 두고 한 말이다.

조산에서 보란듯이 각종 세시기 행차는 4월과 5월의 힘든 시절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아낙들의 화전놀이는 즐거웠고, 청명과 한식 제례 음식은 넉넉했다. 농가에서는 밭갈이가 시작되어 활기찼다. 녹두묵을 만들고, 황조개와 조기로 국을 끓여 먹었다. 복사꽃이 떨어지기

국정 과제임에도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없다.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이라며 실용적 대안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한전공대 설립의 적법성까지 칼날을 들이

성큼 다가온 총선... 협치 물꼬 터야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다. 분열과 갈등으로 여권의 독주와 일방통행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강성 지지자들의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이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정조

그러는 사이 민생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의 그늘에 짓눌려 신음하고, 지방은 생기를 잃은 채 소멸을 향해 치닫고 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다. 거짓된 희망으로 외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여야 모두 선거 때면 '민생 수호' '정치 개혁' '국민 통합' '균형 발전' 등의 정치적 수사를 쏟아내지만 대부분 입발림에 그치고 있다. 말이나 안 했으면 기대도 없으련만 철칙같이 약속해 놓고 저버리니 고문이 따로 없다. 그렇다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환멸을 안겨 주지만 힘없는 서민들이 기발 곳은 미우나 고우나 정치권이 때문이다.

공자는 "정치란 바로잡는 것"(政者, 正也)이라고 했다. 다행히도 아직 약속을 지킬 시간이 여야 모두에게 남아 있다. 내년 총선까지는 1년, 윤 대통령 임기는 4년이나 남았다. 여야 영수회담 등을 통해 딱 막힌 정국의 물꼬를 트고 협치를 여는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사법 리스크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과 정치 개혁,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지역 공약을 이행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하여 국민이 진짜 희망을 꿈꾸게 해야 한다.

어 재방문율을 높이도록 하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이 체험관의 효과는 어둠을 직접 체험하면서 시각장애를 비롯한 장애에 대한 공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체험관 근처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속도를 무장에 주먹으로 설계하고 시각장애 안마, 시각장애 공연장 등도 함께 만들어 '인권 문화 마를 테마파크'로 조성하면 큰 사업이 된다. 이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근로 지원인, 활동 보조 등 비장애인들의 일자리도 함께 창출할 수 있다.

장소로는 무등산 자락에 있는 신양파크 호텔 부지도 검토할 수 있고, 평생 교육 시설로 보고 평생교육원 내 적절한 부지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광산구의 명품 30리길 코스와 하나로 설계하거나 북구 교도소 부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예 적절한 부지를 구입할 수도 있다. 건물 자체도 메시지가 있게 랜드마크로 설계하면 좋겠다. 위치와 추진 방법은 총의를 모아서 적절한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단순히 장애 체험 시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빛으로 세상을 보는 인권 문화 콘텐츠로 설계하여 시민·학생들을 위한 인권 문화 교육의 장이자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암흑 체험관을 흥이 넘치는 편 광주를 만드는 '다크 엔터테인먼트'(Dark Entertainment)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지역 사회가 상상력과 힘을 모았으면 한다.

전에 복어에 미나리·기름·간장을 넣어 만든 복어국은 맛있었다. 도미 역시 시절 생선으로 으뜸이었다. 술집에서는 과하주(過夏酒)를 빚어 팔았다. 딱집에서는 매퍰가루를 반죽하여 방울 모양의 회고 작은 떡 조각을 만들었다. 소나무 껍질과 썩을 섞어 둥근 떡을 만들기도 했고, 찹쌀에 씨를 댄 떡을 섞어 찐 것을 시루떡(餠餅)이라고 했다. 이상의 음식은 모두 봄철 시절 음식이다.

배고픔과 고단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현실과 달리 풍요로운 시절로 비친다. 시대의 실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모두 이리저리 뒤집어 봐야 한다. 음식 소개가 풍족을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희망에 더 무게가 실렸다는 점에서 시절 음식은 힘든 시절에 보릿고개를 넘겼던 옛사람들 삶과 맛이 그렇게 그렇게 섞여져 녹아 있다. 삼짋날과 청명, 한식이 지나면 뒤이어 곡우(穀雨)가 찾아온다. 곡식을 기름지게 하는 비가 내려 4월을 장식한다. 4월 곡우는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이들에게는 단비였다. 마디마디에 자리를 잡은 시절은 배고프고 잔인했던 때를 이겨내는 희망이다. 옛사람들이 만들어 낸 시간이 그랬다.

社說

늘어나는 역귀농...정주 여건 개선 절실하다

전남으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이들도 그에 못지않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파악한 지난 2021년 귀농 인구는 3453명, 귀어 인구는 499명이다. 여기에 귀촌 인구 4만 2611명까지 합치면 한 해 동안 모두 4만 6563명이 유입됐다. 이처럼 농촌에 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정부의 2018년 '귀농·귀촌인 정착 실태 추적 조사'에 따르면 농촌 적응에 실패해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귀촌 비율은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농촌 현장에서 체감한 역귀농 비율은 50%를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 말없이 떠나는 데다 실패 경험 탓에 관련 기관의 조사조차 피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귀농에는 주거 및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영농 실패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고 빈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 늘려야

전남 지역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738명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240명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세 명 중 한 명이 고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전남 지역 전체 교통사고는 15.37%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65% 감소하는 데 그쳤다. 큰 폭의 감소를 보인 전체 교통사고와 비교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감소는 미미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72명, 70대 122명, 80대 45명, 90대 이상 한 명 등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다른 연령층보다 치명률도 높다.

다. 주거의 경우 전남도가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빈집 정보를 게시하고 있지만 매몰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들은 도시와 달리 농촌에 청년 일자리가 많지 않은 데다 직장 복지도 열악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해 정부의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3%가 현재 귀농·귀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에서 귀농·귀촌인들은 소중한 이웃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전남을 찾아오는 귀농·귀촌 인구가 4만 명에 이른다니 그들 중 절반만 정착에 성공해도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귀농인 유치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그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부터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특히 안정적 정착의 기반이 될 일자리와 주택, 농지 등에 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남 지역 운전면허 소지자 113만 8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은 15.9%(18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면허 갱신과 적성 검사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전남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사망 사고의 주원인인 안전벨트와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전남 지역 운전면허 가진 반납율은 1.5%에 불과하다. 면허 교환 수당인 대중교통 여건이 불만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고가 빈발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 가진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보다 늘려야 한다.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 제공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無等鼓

강진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강진군은 지난해 '강진형 육아 양육수당' 정책을 도입하고 10월부터 아동 1인당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7년 동안 지급하니 아이 한 명당 50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까지 합하면 매달 70만 원씩을 받는 셈이다.

지난 11일에는 6년 만에 강진군에서 세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됐다. 세 쌍둥이도 화제지만 자녀 수를 따지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터라 이 부부가 7년 동안 받게 될 수당이 1억 5120만 원이라는 사실이

출산 장려금

더 관심을 끌었다. 2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이용권' 등 1회성인 축하금과 정부가 매달 주는 수당 10만 원은 제외한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진군의 파격적인 인구 유입 정책에 비판도 있지만 오죽했으면 이렇까라는 안타까운 반응도 많다.

'인구는 국력'이라는 명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신라와 조선시대에는 세 쌍둥이 이상 출산자에게 임금이 직접 하사품을 내렸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문무왕 때인 670년 1월 10일 한기부에 살던

한 여중이 네 쌍둥이를 낳자 나라에서 곡식 200석을 상으로 줬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세 쌍둥이 이상이면 남녀 구분없이 쌀과 콩 열 석을 하사했다. 열 석은 종 9품 관리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한다. 명종실록 3권에는 1546년 원주에 사는 사월이가 세 쌍둥이를, 양산에 사는 명지라는 노비가 네 쌍둥이를 낳았다고 기록돼 있다. 이에 승정원이 마땅히 열 석을 내려야 하지만 흥년이 계속돼 비축된 곡식이 거의 떨어졌으니 감량하여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아뢰자 명종은 "그 정도로 국고에 문제가 되겠느냐"며 전례대로 할 것을 명했다.

북한에선 다산 여성들에게 훈장까지 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에게 '로력 영웅' 칭호와 함께 다양한 부상을 주고 있다며 세 쌍둥이 이상을 낳을 경우 아들이면 은장도, 딸이면 금반지를 부모에게 준다고 최근 보도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화두임이 분명하다. 애를 낳아 잘 기르는 것 이상, 애국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정필수 사회당당 편집국장 bungy@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